

 특별기고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英·美등 최저가낙찰제 버린 이유

영국 정부는 1993년 건설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 민관 공동 위원회를 구성, 문제점을 진단해 레이섬(Latham) 보고서를 발간하고, 발주자 주도하에 산업체와 협력해 건설산업에서 2000년까지 30% 원가절감 목표를 제안했다. 이후 존 메이저 당시 총리의 지시로 정부 건설 조달 효율성 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이 위원회는 정부 조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사업 투자 가치 향상을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1995년에 정부의 건설조달로 명명된 레빈 보고서(Levine Report)를 발간해 공공 조달시스템 혁신과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관련 현안과 실천사항을 22개 항목으로 제안했다.

위원회는 2500파운드(약 425억원) 규모 이상의 20개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평균 약 24%(총액 기준 약 850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초과했고 공기도 지연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공공사업의 최저가낙찰제 조달 제도에서는 투자효율성 확보가 어렵고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적대적 관계 발생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저조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폐지하고 최고가낙찰방식으로 전환했다.

영국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운동은 발주제도 및 발주자의 역량 강화 건설서비스를 수요자가 주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5-4-7 전략'으로 불리는 혁신에는 수요자인 발주자는 예산을 절감하고, 공급자인 계약자는 수익이 늘어나는 발주자와 계약자가 모두 상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10년간의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펼친 결과 공공사업의 사업비가 20~30% 절감됐고 공기도 40% 정도 단축시켰다. 동시에 계약자의 이익률도 6~10%로 향상됐다.

미국도 1994년 연방조달합리화법(FASA)이 만들어지면서 최저가낙찰방식에서 '기술능력 과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Best Value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사라진 최저가낙찰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이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기획·계획·설계·시공·하차 보수·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및 유지관리 비용이 늘고 공기가 지연돼 결국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나아가 낙찰률 하락으로 인한 저가 자재 구매, 저임금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투입으로 품질이 확보되지 않아 유지관리과정에서 대형 안전사고 우려도 나올 수 있고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데다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도 건설사들이 수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공사를 떠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도산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건설물량 감소로 입찰경쟁률이 급증하는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실적공사비 확대와 표준품셈 현실화에 따른 입찰기준가격(예정가격) 하락으로 인해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실행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후진국형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지양하고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